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Received: Dec 16, 2024

Revised: Feb 25, 2025

Accepted: Feb 26, 2025

김유나¹, 박성해²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박사과정¹, 숙명여자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조교수²

교신저자: 박성해
숙명여자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in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dult
Attachment and Growth after Adversity:
For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MAIL:
elly9691@sookmyung.ac.kr

Yuna Kim¹, Sung-hae Park²

Department of Music Therapy, Ewha Womans University/ Ph.D. Candidate.¹

Department of Art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²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23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불안, 회피),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충청 지역 자폐아동 전문센터 및 발달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는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8.0 통계 프로그램과 Hayes의 PROCESS Macro ver. 4.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모의 성인애착과 부모효능감과의 관계에서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성인애착과 장애수용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성인애착 중 회피애착은 부모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불안애착은 부모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장애수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가 검증되어 학령기 발달장애를 둔 부모의 역경 후 성장을 조력하는 데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학령기 발달장애, 성인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 Copyright 2025.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등록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5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대비 5.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이다. 이 중 지체장애 비율은 15개 장애유형 중 4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적,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2011년 7.3%에서 2022년 9.9%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약 8천 명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국가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지원, 가족 휴식 지원, 부모 상담 지원 등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8).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돌봄 제공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 양육과정에서 초래되는 죄책감, 수치심 등의 부정적 정서(이혜옥, 2015), 사회생활 및 직업 활동의 제약(이미선, 김경진, 2000)과 같은 양육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양육과정에서 대개 발달장애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여 자녀의 이상행동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과정에서 혼란을 겪으며, 장애 진단 후 인정을 거부하는 등 자녀의 장애로 인한 충격, 분노 및 죄책감의 과정을 겪는다(장영실, 2017). 그 외에도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반 자녀와는 다른 양육 문제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심리·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므로(박미하, 2018)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이미선, 김경진, 2000; 이혜옥, 2015). 그러나 모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초래되는 양육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특수한 요구를 지닌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자신의 강인함을 인식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현재를 성찰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Counselman-Carpenter, 2017).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고 대응한 결과로 얻는 긍정적인 변화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고 한다. 외상 후 성장이란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얻게 되는 주관적 지각의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Tedeschi & Calhoun, 1996). 외상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는 삶의 질 향상,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정신 증가, 외상에 대한 심리적 회복력 증가 등이 있다(유미해, 2020).

그러나 외상이란 주로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성폭력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라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정신장애 분류 체계의 외상 개념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서희정, 홍창희, 2020). Tedeschi와 Calhoun(1996)은 ‘외상’을 ‘삶의 위기’나 ‘심각한 스트레스 원’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 자녀의 출산과 양육 역시 외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서희정, 홍창희, 2020).

한편,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는 외상 후 성장과 외상 자체의 변인(외상사건의 종류, 외상사건의 충격 심각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상 후 성장 이론에서의 외상은 외상사건(Traumatic Events) 그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보다 외상을 경

험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이 더 강조된다(김지민, 2021). 특히 심리적 외상사건에는 고통스러운 병리적인 부분과 함께 성장과 성숙을 향한 동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을 치료하고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기능을 외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Fairbank et al, 2000), 더 나아가 삶의 가치와 바람직성을 추구하고, 보다 넓어진 대인관계 및 친밀감의 증진, 자아상의 긍정적인 변화 등과 같은 외상 이후의 긍정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김유라,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반영하는 단어로는 '외상'이 적절하지 않으며(서희정, 홍창희, 2020),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긍정적 변화처럼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역경이나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에 투쟁하며, 긍정적인 심리 변화인 역경 후 성장(growth after adversity)을 경험할 수 있다 (Linley, Alex, & Joseph, 2004). 역경 후 성장은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긍정적 지표로 연구되어 왔다(전지예,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의학적 치료보다는 이들 부모의 긍정적 변화로 인한 적응에 초점을 두어 '역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역경 경험은 개인이 느끼는 위험 정도에 따라 심리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반응은 그가 가진 애착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김유라, 2021). 이러한 애착은 역경 후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안정된 애착 관계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안정감을 주는데, 안정 애착은 역경 후 성장과 정적인 관계, 불안정 애착은 역경 후 성장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인재, 양난미, 2017; 임지준, 권석만, 2014). 또한 성인애착에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안애착은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근접성을 추구하며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걱정을 자주하고, 회피애착은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특징으로 과도한 자기 의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Gallagher et al., 2016).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가진 개인은 정신 건강 및 조정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Besser & Neria, 2012). 불안애착 유형이 강한 사람들은 애착 대상과 짧은 기간의 분리에도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반응 물질인 코티솔 수치가 높은 Diamond, Hicks, & Otter-Henderson, 2008) 반면, 회피애착 유형이 강한 사람들은, 거리 유지 및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으로 애착에 대한 욕구 부인과 감정과 생각을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ver & Mikulincer, 2002).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이라는 용어를 애착 불안정성에 기초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역경을 이해하고 다루는데 애착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은 개인의 애착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유라, 2021). 즉 애착은 내·외부 세계에 관한 탐색 능력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며 (Hazan & Shaver, 1987),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성인기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사회화와 적응에 기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애착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기조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Bowlby, 1982). 그러나 애착유형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애착유형이 역경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김은미, 이종연, 2015), 애착유형은 매개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진수, 서수균, 2011). 이처럼 애착과 역경 후 성장 관련 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역경 후 성장의 변화 과정에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성인애착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안유진, 2016). 자기효능(self-efficacy)의 개념은 인지체계가 행동을 중재한다는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1977년 Bandura가 제안한 것으로, 사회학습이론에서 인간 행동 변화의 주요 결정인자로서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자신의 효율성과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Owen & Froman, 1988). 국내에서는 주로 자기효능감과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자기효능감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주혜, 2019; 장민, 김예실, 2020).

자기효능감 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 중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부모효능감(이모아, 2010)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가 경험하는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자기효능감을 발달시켜갈 수 있는 성취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자기효능감을 습득하고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최은실, 2001). 부모 역할에 대한 개념 가운데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으로 Jones와 Prinz(2005)는 부모효능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부모효능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부모효능감이 부모 양육에 대한 능력을 의미있게 설명하기 때문이다(최빛내, 정현숙, 2021).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경우 어려 상황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

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 임하게 되며(김정은, 2018), 목표를 향한 과제 수행 중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허혜정, 2019). 부모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강압적이거나 무기력한 양육행동을 보이며, 심지어 자녀의 발달에 치명적인 아동학대도 일으킨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8). 특히 부모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녀에게 통제적이거나 강압적, 체벌적인 양육태도를 지니며,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까지 보인다고 한다(김민형 등, 2015).

한편,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더불어 역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수용 변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수용이란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장애가 불편하고 제한을 주지만, 자신이 가진 여러 특성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그 상태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수경, 박지영, 2011). 장애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강혜원, 2017).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장애수용은 장애아 부모가 자녀의 장애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가장 상위의 단계이다(고일영, 2010). Belgrave(1991)는 장애에 대한 적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장애수용을 강조하였으며, 장애수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정체성을 보이며, 장애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윤명숙, 이은실, 2014).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장애 자녀는 상호 순환적이어서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의 장애를 수용하는 것은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장애자녀를 위한 현실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관우, 남진열, 2016).

이러한 장애수용은 부모의 애착유형과도 관련이 있다. 안정애착의 부모는 장애아동이 문제행동특성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용적이고, 지지적이며, 장애아동과 비교적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만 불안애착의 부모는 비수용적이고, 비지지적이며, 정서적으로도 차가운 것(Crowell & Feldman, 1991)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수용 수준이 높은 장애자녀 부모의 경우, 장애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성장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장애자녀의 일상생활과 교육환경에 맞게 양육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이규옥 등, 2010).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장애아동이 가족 구성원으로 된 상황을 좌절이나 상실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아동의 정상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일영, 2010).

선행연구들을 통해 장애자녀를 돌보는 것은 삶의 위기와 역경이지만, 그 역경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증가시키고 장애자녀에 대해 균형 잡힌 부모의 시각으로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수용은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양육과정에서 초래되는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행동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변화인 역경 후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로서 자녀의 나이는 학령기, 즉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있어서 학령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장애 진단을 받은 초기 2년 기간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장애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강하게 경험하며(Burden, 1991), 이 시기가 지나 역경 후 성장이 적응적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Kangas, Williams, & Smee, 2011).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이 1차적 사회화 기관인 가정을 벗어나 2차적 사회화 기관인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접하게 되면 장애아동의 능력면에서 한계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장관식, 1986), 학교 교육의 구조화를 처음 겪게되어 문제행동이 증폭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Chandler & Dahlquist, 2002). 특히 학령기는 발달을 위한 치료와 교육이 집중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사회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변용찬 등, 2006) 이 시기의 발달장애 부모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하는 연구 문제는 그림 1과 같다.

연구 문제 1.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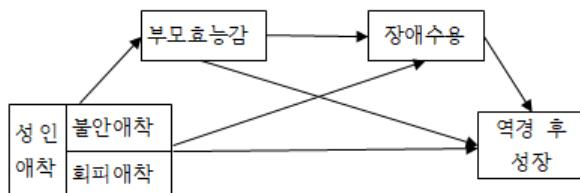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충청도 지역 자폐아동 전문센터 및 발달장애학교에 다니는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편의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즉 독립변수인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 매개변수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등 4개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129명으로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152명에게 설문 조사하였으며, 총 15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자녀의 연령은 만 6세 35명 (23.0%), 만 7세 28명(18.4%), 만 10세 26명 (17.1%), 만 8세 21명(13.8%) 순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 101명(66.4%), 여자 51명(33.6%)이었으며,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 77명(50.7%)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외동인 경우도 23명(15.1%)을 차지하였다. 자녀 장애 유형을 복수 응답한 결과 자폐성장애 77명(50.7%), 뇌병변장애 41명

(27.0%), 지적장애 32명(21.1%)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장애 진단 시기는 만 3세 42명(27.6%)이었으며, 만 4세 22명(14.5%), 만 1세 20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만 0~5세까지는 130명(85.5%)으로 대부분 학령기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별은 남자 33명(21.7%), 여자 119명(78.3%)이었으며, 부모 연령은 만 40~49세가 90명(59.2%)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구도구

부모의 성인애착

부모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의 '친밀 관계 경험 개정판 ECR-R(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을 김성현(2004)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친밀 관계 경험 개정판 ECRR-K(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Revised-Korean)'을 사용하였다. ECR-R은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독립적인 하위영역인 불안애착 18개 문항과 회피애착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불안애착은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유기에 대한 걱정을 의미하며, 회피애착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의존함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애착, 회피 애착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 하위영역인 불안애착은 .89, 회피애착은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 하위 영역인 불안애착은 .92, 회피애착은 .85이다.

역경 후 성장

역경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승훈(2007)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성장 척도는 삶의 위기, 역경 및 외상 후 나타나는 긍정적 심리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선행연구들(서희정, 홍창희, 2020; 전지예, 2020)에서 본 연구 주제와 같은 용어인 역경 후 성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트라우마 경험 이후 긍정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개 문항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경험이 없음' 0점에서 '매우 많이 경험함' 5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트라우마 경험 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송승훈(2007)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다.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한 척도 중 부모효능감으로 명명한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PSOC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숙재(1997)가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이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

대를 측정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9점에서 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숙재(1997)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장애수용

장애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고일영(2010)이 개발한 장애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용 문항인 25번, 26번, 27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역채점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36~144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의 장애에 대한 부모의 수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일영(2010)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8.0 통계 프로그램과 Hayes(2022)의 PROCESS Macro ver. 4.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성인애착(불안, 회피), 역경 후 성장, 부모

효능감, 장애수용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6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부모의 성인애착 정도는 평균 평점 $3.33(\pm 0.73)$ 점이었으며, 불안애착 정도는 평균평점 $2.80(\pm 1.05)$ 점, 회피애착 정도는 평균 평점 $3.86(\pm 0.83)$ 점으로 나타났다. 역경 후 성장의 경우 평균평점 $2.81(\pm 0.85)$ 점. 부모효능감의 경우 평균 평점 $3.17(\pm 0.71)$ 점, 장애수용의 경우 평균 평점 $2.93(\pm 0.51)$ 점으로 나타났다(표 1).

연구 변수들의 상관관계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성인애착과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은 역경 후 성장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5$, $p<.001$).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17$, $p<.05$), 회피애착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9$, $p<.001$). 즉 애착 불안정이 높을수록 역경 후 성장은 낮으며, 특히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역경 후 성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부모의 성인애착과 매개변수인 부모효능감, 장애수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성인애착과 부모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r=-.23$, $p<.01$)가 나타났다. 이 중 불안애착과 부모효능감과는 상관관계($r=-.12$, $p>.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애착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5$, $p<.01$). 즉 애착 불안정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으며, 특히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인애착과 장애수용과는 부적 상관관

표 1. 연구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
성인애착	3.33	0.73	1.58	6.33	1~7
불안애착	2.80	1.05	1.00	6.67	1~7
회피애착	3.86	0.83	2.06	6.33	1~7
역경 후 성장	2.81	0.85	0.63	4.63	0~5
부모효능감	3.17	0.71	1.22	5.00	1~5
장애수용	2.93	0.51	1.50	3.97	1~4

표 2. 연구 변수들의 상관관계

(N=152)

변수	성인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성인애착	1					
불안애착	.83***	1				
회피애착	.71***	.20*	1			
역경 후 성장	-.35***	-.17*	-.39***	1		
부모효능감	-.23**	-.12	-.25**	.50***	1	
장애수용	-.44***	-.38***	-.29***	.41***	.40***	1

* $p<.05$, ** $p<.01$, *** $p<.001$

계가 나타났다($r=-.44$, $p<.001$). 이 중 불안애착과 장애수용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38$, $p<.001$), 회피애착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9$, $p<.001$). 이는 애착 불안정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은 낮으며,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50$, $p<.001$), 장애수용과 역경 후 성장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41$, $p<.001$). 이는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역경 후 성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표 2).

이중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인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의 직렬 이중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22)가 제안한 Process Macro 모델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3, 그림 2).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은 부모효능감($=-.080$, $p>.05$)과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032$,

표 3. 불안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

(N=152)

경로	β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LLCI	상한값 ULCI
불안애착→ 부모효능감	-.080	.054	-1.465	.145	-.187	.028
불안애착→ 장애수용	-.163	.034	-4.771	.000	-.231	-.096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265	.051	5.182	.000	.164	.366
불안애착→ 역경 후 성장	-.032	.060	-.525	.600	-.151	.088
부모효능감→ 역경 후 성장	.482	.091	5.278	.000	.301	.662
장애수용→ 역경 후 성장	.381	.134	2.831	.005	.115	.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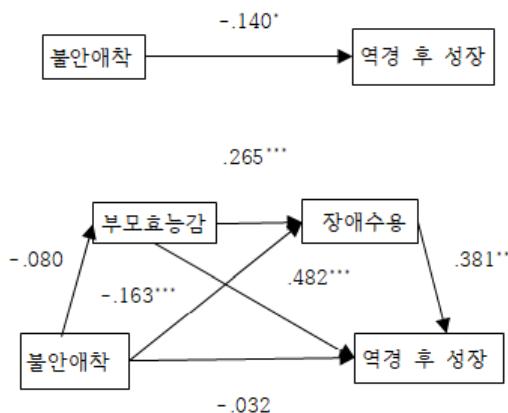


그림 2. 각 경로별 효과크기 (불안애착)

$p>.05$)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장애수용($=-.163, p<.001$)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효능감은 장애수용($=.265, p<.001$)과 역경 후 성장($=.482,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수용은 역경 후 성장($=.381, p<.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불안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총효과($=-.14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이 추가되었을 때 불안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032, p>.05$).

다음으로 불안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

향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단순 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표본수 5,000개를 재추출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표 4). 95% 신뢰구간 내에서 매개효과 추정치에 대한 경로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09(-.218\sim-.007)$ 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매개효과 검증결과 불안애착이 부모효능감을 거쳐 역경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는 $-.038(-.114\sim.031)$ 로 95%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불안애착이 장애수용을 거쳐 역경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는 $-.062(-.132\sim-.010)$ 로 95%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을 통해 역경 후 성장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애착은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으로 가는 이중매개 경로 $-.008(-.027\sim.008)$ 의 부트스트랩 결과 95%의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

표 4.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 (불안애착)

경로	β	BootSE	(N=152)	
			하한값	LLCI
불안애착 \rightarrow 부모효능감 \rightarrow 역경 후 성장	-.038	.037	-.114	.031
불안애착 \rightarrow 장애수용 \rightarrow 역경 후 성장	.062	.031	-.132	-.010
불안애착 \rightarrow 부모효능감 \rightarrow 장애수용 \rightarrow 역경 후 성장	.008	.009	-.027	.008
총 간접효과	.109	.053	-.218	-.007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5.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 (N=152)

경로	β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LLCI	상한값 ULCI
회피애착 → 부모효능감	-.208	.067	-3.115	.002	-.341	-.076
회피애착 → 장애수용	-.123	.047	-2.635	.009	-.214	-.031
부모효능감 → 장애수용	.258	.055	4.697	.000	.150	.367
회피애착 → 역경 후 성장	-.256	.071	-3.584	.000	-.397	-.115
부모효능감 → 역경 후 성장	.432	.089	4.884	.000	.257	.607
장애수용 → 역경 후 성장	.313	.123	2.548	.012	.070	.557

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인 회피애착,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그림 3).

독립변인인 회피애착은 부모효능감($-.208$, $p<.01$), 장애수용($-.123$, $p<.01$)과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256$, $p<.001$)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효능감은 장애수용($.258$, $p<.001$)과 역경 후 성장($.432$,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수용은 역경 후 성장($.313$, $p<.05$)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회피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총효과($-.402$,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이 추가되었을 때 회피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즉 직접효과($-.256$, $p<.001$)는 감소되어, 회피와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피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45$ ($-.240 \sim -.060$)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애착이 부모효능감을 거쳐 역경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는 $-.090$ ($-.165 \sim -.025$)으로 95%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회피애착이 장애수용을 거쳐 역경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는 $-.038$ ($-.098 \sim -.002$)로 95%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는 표 6과 같다.

또한 회피애착이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으로 가는 이중매개 경로는 $-.017$ ($-.042 \sim -.001$)로 95%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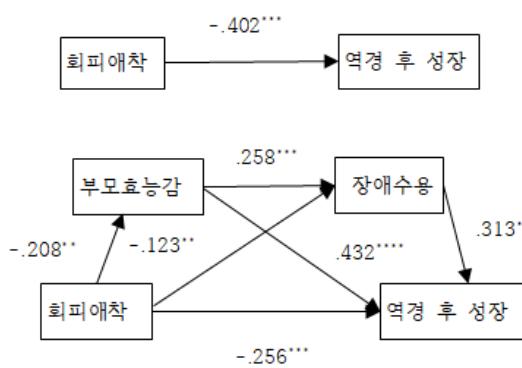


그림 3. 각 경로별 효과크기 (회피애착)

표 6.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 (회피애착)

(N=152)

경로	β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값 LLCI	상한값 ULCI
회피애착→ 부모효능감→ 역경 후 성장	.090	.036	-.165	-.025
회피애착→ 장애수용→ 역경 후 성장	-.038	.025	-.098	-.002
회피애착→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역경 후 성장	-.017	.011	-.042	-.001
총 간접효과	-.145	.046	-.240	-.060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회피애착이 낮을수록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을 거쳐 역경 후 성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독립변인인 회피애착은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을 순차적으로 거쳐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서도 회피애착이 역경 후 성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박미하(2018)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 중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이 부적 관계가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정 애착이 역경 후 성장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불안정 애착과는 부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이인재, 양난미, 2017; 임지준, 권석만, 2014)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부모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 중 회피애착은 부모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불안애착은 부모효능감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인애착을 연구한 오가영과 김종두(2020)의 연구결과에서도 애착은 양육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김은영(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양육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회피애착을 형성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장애수용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장애자녀 부모의 성인애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경은과 정남운(2018)의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외상 후 성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Gallagher 등(2016)의 연구

착이 장애수용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박미하(2018)의 연구결과와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장애수용과의 관계를 본 김선영(2022)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장민과 김예실(2020)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외상 후 성장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여주혜(2019)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장애수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성장과 같은 유사개념을 사용한 윤명숙과 이은실(2014)의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가 장애아동이 가족 구성원으로 된 상황을 좌절이나 상실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아동의 정상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고일영, 2010), 이는 역경 후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양지나(2020)의 연구결과에서도 발달장애를 둔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둘째,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 중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 사이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회피

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은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안정 애착 중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구분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불안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은 역경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매개변인 장애수용을 통해서만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박미하, 2018)와 불안애착은 장애수용과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정승영, 2017)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장애수용은 역경 후 성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박미하(2018)의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이 역경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들이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은미, 이종연, 2015)가 있는가 하면, 애착은 매개변인들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김태사, 안명희, 2013). 이처럼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이 있음과 애착의 유형에 따라 영향하는 변인들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반면, 회피애착은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및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은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이 부모효능감, 장애수

용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역경 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역경 후 성장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회피애착이 높으면 낮은 부모효능감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김은영, 2018)와 낮은 부모효능감은 낮은 장애수용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양지나, 2020) 및 장애수용이 낮을수록 역경 후 성장이 낮다는 연구결과(윤명숙과 이은실, 2014)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이들 부모의 충격, 부인, 죄책감, 수치 등에서 초래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장애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장애수용을 통해 새로운 변화인 역경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경험을 역경으로 보고,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불안애착의 경우 불안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장애수용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회피애착의 경우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안정적인 애착의 중요성과 부모효능감, 장애수용이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특히 이는 부모의 애착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

용을 투입하여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상담현장에서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역경 후 성장을 조력하는 데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대상자의 모수를 늘려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장애자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데에 활용이 될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원 (2017). **청각장애인의 성인애착, 장애수용,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고관우, 남진열 (2016). 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장애수용을 매개로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상황과 복지**, 53, 409-441.
- 고일영 (2010).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경은, 정남운 (2018).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성장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3), 739-764.
- 김민형, 곽승철, 김기룡 (2015).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 **자폐성장애연구**, 15(2), 49-66.
- 김선영 (2022).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거부적 양육태도와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경험 검사 개정판타당화 연구: 확증적요인분석과 문항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유라 (2021).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의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용서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은미, 이종연 (2015). 연인과의 이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이별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와 문제중심대처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6(1), 147-174.
- 김은영 (2018).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신화와 양육효능감의 중다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김정은 (2018). 교류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 21, 9(6), 647-659.
- 김지민 (2021).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외상후 인지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및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진수, 서수균 (2011).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0(3), 793-809.
- 김태사, 안명희 (2013).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한국상담심리학회**, 25(4), 853-871.
- 박미하 (2018). 장애자녀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5(2), 225-242.
- 박수경, 곽지영 (2011).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과 관련요인. **재활복지**, 15(4), 261-281.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권선진, 조홍식, 조성열, 강종건, 최승희 (2006).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복지 욕구 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8.**
- 보건복지부 (2023). 등록장애인 265만 3,000명(전년 대비 8,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2023.04.19. 보도자료.
- 서희정, 홍창희 (2020).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역경후 성장: 장애 기간에 따른 인지 대처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인**, 22(4), 135-159.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후 성장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안유진 (2016). **부모애착, 자아분화수준,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양지나 (2020).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장애수용과 부모 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차의과학대학교.
- 여주혜 (2019). **자기효능감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긍정적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오가영, 김종두 (2020).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알아차림과 자기자비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2), 331-342.
- 유미해 (2020).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윤명숙, 이은실 (2014).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 조절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보**, 26, 55-74.
- 이규옥, 한성희, 박혜준 (2010).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 본 가족의 성숙과 변화. **정서행동장애인연구**, 26(4), 137-163.
- 이모아 (2010).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참여가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미선, 김경진 (2000).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1, 1-135.
- 이인재, 양난미 (2017). 성인 애착 불안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 외상경험을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 **상담학연구**, 18(1), 329-348.
- 이혜옥 (2015). **장애인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위한 IFS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성산효대학원대학교.
- 임지준, 권석만 (2014). 성인애착과 실연 스트레스 및 실연 후 성장의 관계: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9(1), 321-351.
- 장관식 (1986). **장애인 아동 어머니가 갖는 문제점과 사회사업 개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전대학교.
- 장민, 김예실 (2020). 자기효능감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인지 유연성과 희망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20(6), 131-141.
- 장영실 (2017). **발달장애인 아동을 둔 여성 한부모의 양육경험**.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전지예 (2020).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 부담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정승영 (2017). **중도장애인의 성인애착과 장애수용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최빛내, 정현숙 (2021). 학령기 학부모를 위한 Bandura 부모효능감 척도 타당화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9(4), 49-67.
- 최은실 (2001). **애착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허혜정 (2019). 부모의 인생태도가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31(4), 973-983.
- Armsden, G. C., McCauley, E.,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http://doi.org/10.1007/BF02202939>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37, 122-147.
[http://doi.org/10.1016/0033-295X\(78\)90002-4](http://doi.org/10.1016/0033-295X(78)90002-4)
- Belgrave, F. Z. (1991). Psychological predictors of adjustment to disability in African-American. *Journal of Rehabilitation*, 19, 28-35.
- Besser, A., & Neria, Y. (2012). When home isn't a safe haven: insecure attachment orientation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TSD symptoms among Israeli evacuees under missile threa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 18-25.

- Practice, and Policy*, 4(1), 34-46.
<http://doi.org/10.1037/a0026405>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
- Burden, R. L. (1991). Psycho-social transitions in the live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handicapping condition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4(4), 331-343.
<http://doi.org/10.1080/09515079108254441>
- Chandler, L. K., & Dahlquist, C. M. (2002). Functional assessment on strategies to prevent remediate challenging behavior in school settings. NJ: Merrill Prentive Hall.
<http://doi.org/10.1177/073724770202700405>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http://doi.org/10.1006/drev.1997.0448>
- Counselman-Carpenter, E. A. (2017). The presence of posttraumatic growth (PTG) in mothers whose children are born unexpectedly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42(4), 351-363.
<http://doi.org/10.3109/13668250.2016.1247207>
- Crowell, J. A., & Feldman, S. S. (1991). Mother's working model of relationship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97-604.
<http://doi.org/10.1037/0012-1649.27.4.597>
- Diamond, L. M., Hicks, A. M., & Otter-Henderson, K. D. (2008). Every time you go away: Changes in affect, behavior, and physiology associated with travel-related separations from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2), 385-403.
<http://doi.org/10.1037/0022-3514.95.2.385>
- Fairbank, J. A., Ebert, L., & Costello, E. J. (2000). Epidemiology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Nutt, D., Davidson, J. R. T., & Zohar, J., editor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iagnosis, management and treatment*. London: Martin Dunitz. 17-28.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http://doi.org/10.1037/0022-3514.78.2.350>
- Gallagher, H. C., Richardson, J., Forbes, D., Harms, L., Gibbs, L., Alkemade, N., MacDougall, C., Waters, E., Block, K., Lusher, D., Baker, E., & Bryant R. A. (2016). Mental health following separation in a disaster: the role of attachment.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9(1), 56-64.
<http://doi.org/10.1002/jts.22071>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http://doi.org/10.4324/9781351153683-17>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http://doi.org/10.1016/j.cpr.2005.01.005>
- Kangas, M., Williams, J. R., & Smee, R. I. (2011). Benefit finding in adults treated for benign meningioma brain tumors: relations with psychosocial wellbeing. *Brain Impairment, 12*(2), 105-116.
<http://doi.org/10.1375/brim.12.2.105>
- Linley, O. P., Alex, J.,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http://doi.org/10.1023/B:JOTS.0000014671.27856.7e>
- Owen, S. V., & Froman, R. D. (1988). Development of a college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April, 6-8.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2), 133-161.
<http://doi.org/10.1080/146167302101541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http://doi.org/10.1007/BF02103658>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dult Attachment and Growth After Adversity:
For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Yuna Kim¹ Sung-hae Park²

Department of Music Therapy, Ewha Womans University/ Ph.D. Candidate.¹

Department of Art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²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and growth after adversity, in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via parenting 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Self-report data of 152 parents of 6-12 years ol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8.0 and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d the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dult attachment, growth after adversity, parental 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of children with school-age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growth after adversity. Additionally,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efficacy. However, among parents' adult attachments, unlike anxiety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al efficacy. Contrarily,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growth after adversity and disability acceptance. Second, among the attachments of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were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ttachment and growth after adversity. These findings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to support the *growth after adversity* of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words : school-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ult attachment, growth after adversity, parental efficacy, disability acceptance